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동아시아협력팀 이창재 선임연구위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임민경 연구원
2. 출장기간: 2011년 6월 13일 ~ 6월 16일 (3박 4일)
3. 출장지: 중국 하얼빈
4. 출장목적:
 - 중국사회과학원·헤이룽장성 인민정부 주최,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주관 제 4회 동북아지역협력발전국제포럼 참석 및 발표

II. 출장일정

일자	출장지	방문 기관 및 일정
2011. 6.13 (월)	인천 출발	- 인천출발, 하얼빈 도착(CZ684, 18:50분 출발)
2011. 6.14 (화)	하얼빈	- 제4회 동북아지역협력발전국제포럼 참석 및 대회 발표(이창재 선임연구위원)
2011. 6.15 (수)	하얼빈	- 제4회 동북아지역협력발전국제포럼 한 중 조별토론 발표 및 사회(임민경 연구원) - 제22회 하치아회 박람회 참관
2011. 6.16 (목)	인천 도착	- 하얼빈출발, 인천도착(OZ340, 18:00도착)

Ⅲ. 활동 내용

1. 제 4회 동북아지역협력발전국제포럼

- 일시/장소: 2011. 6. 14 오전, 오후/하얼빈시 샹그릴라 호텔
- 주요내용: 동북아 주요국들의 동북지역 경제협력 현황 및 과제

포럼개요

- 본 포럼은 헤이룽장성 인민정부와 중국사회과학원이 주최하고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이 주관함. 동북아 주요 5개국(중, 한, 일, 몽, 러)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각국의 대 중국 동북지역의 협력 및 교역현황에 관해 토론함.
- 주요 참석자로는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을 포함, 한국 측 인사로는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의 조백상 총영사 및 영사,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소장, 한국통일연구원 등 총 12인이 참석함.

주요내용

일본

- 최근 일본의 대 동북아 주요 현안은 △한중일 FTA의 추진,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지원 및 △동북아 국가 간 물류 인프라 확보였음.
- 일본 동아시아학회 부회장이자 일본 내 랴오닝성 전문가로 유명한 오가와 교수는 최근 일본의 대미 수출비중이 감소하면서 이를 중국과 한국이 채우고 있음을 언급, 한중일 FTA의 체결의 시급함을 강조함.
- o 일본의 대미 수출비중은 1987년 최고치(37%)를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2010년 일본의 대미 수출비중은 15.4%였던 반면 대중 수출비중은 그 두 배에 달함.
- o 참고로 2010년 일본의 대한(韓), 중(中) 시장규모는 대미 수출규모의 2~3배에 이룸.
- 한미 FTA체결 협상 후,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이 관세특혜를 누리는 반면, 일본의 대미 수출기업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봄. 특히,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의 타격이 클 것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일본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한중일 세 국가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는 농림수산 산업이 가장 유망함.
- o 특히, 생산에서 자금운용 및 가공기술에 이르기까지 농업협력의 종합적인 체계를 확립한 일본의 경험이 중국 동북지역에 참고 가치가 있음을 강조함.
- 일중 경제협력의 다수 주체인 일본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일본 국내에서의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 시장진출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고 있음.
- o 2010년 기준, 일본 전국에는 421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들이 전체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9.7%에 달함. 중소기업은 일본 전체 취업의 70% 이상을 해결하고, GDP의 53%를 창출함.
- o 일본의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과의 공생을 통해 발전해 옴. 그러나 최근 일본 대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주가 감소, 시장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됨.
- 그러나 일본 중소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원인은 한국의 실정과 유사했는데 주로 자금부족과 대중 투자정보의 부재, 실패에의 지나친 우려 등이 포함됨. 또한 독자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중국진출을 막는 요인으로 나타남.
- 일본 중소기업이 대중국 진출 난관은 한국기업의 그것과 상당 부분 비슷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이 새로운 과제로 드러남.
- o 예를 들어, 대중국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용자 서비스를 강화해 자금부족을 해소하는 중소기업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함.
- 헤이룽장성을 포함한 동북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통하는 동북아 물류거점에 위치, 현재 한, 일, 러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할 물류 운송로 건설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임.
- o 현재 하얼빈을 중심으로 자무스, 무단장, 치치하얼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형성된 상황임.

- 지난 2011년 5월 22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 4차 한중일 수뇌회담에서 한중일 3국의 육해 운송망 건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

한국

- 현재 헤이룽장성에 가장 큰 규모로 투자 중인 한국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이 있음.
- 산업은행은 2010년 헤이룽장성 정부와 PEF(사모펀드) 공동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헤이룽장성 내 지하자원을 보유한 탄광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현지기업에 투자 중임.
- 한국과 헤이룽장성의 유망 협력 영역은 저탄소 녹색산업, 생물농업, 풍력발전 및 신에너지 등으로 신흥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큼.

몽골, 러시아

- 몽골의 대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은 주로 농산물과 광물자원을 위주로 이루어짐.
- 몽골은 쌀, 식용유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몽골 동북부 국경과 인접한 헤이룽장성과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함.
- 2010년 중러 무역규모는 590억 달러로, 최근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극동지역의 대외무역액을 4배 이상 늘릴 것(270억 달러->1,000억 달러)을 목표로 제시함.
- 현재 이 계획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의 투자확대와 함께 중·러 국경지대를 연결할 물류노선을 확립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 중임.
- 2009-2018 중·러 국경지대 교통인프라 건설에 관한 강요를 발표한 후, 양국 간 국경지대 협력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과 헤이룽장성 간 관광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논의 중임.
- 러시아는 헤이룽장성의 최대 무역국으로 상품교역 뿐 아니라 인재교류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러시아 과학기술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헤이룽장성 중점대학인 하얼빈 이공대학 간 기술인재 교류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임.
- 헤이룽장성의 열악한 물류여건과 지리적 위치로 인해 상품교역이 힘든 한국에 있어, 러시아의 사례(관광협력, 인재교류)는 한국과 헤이룽장성 간에도 다양한

협력 영역이 가능함을 보여줌.

2. 한·중 조별토론

□ 일시/장소: 2011. 6. 15 /하얼빈시 우의궁

□ 주요내용: 1세션 사회, 2세션 발표(한국과 헤이룽장성의 무역현황 및 전망)

창지투 개발협력의 현황 및 난제

- 창지투의 핵심은 지역발전과 대외개방임. 특히, 북한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며 북한의 대외개방을 이끌어야 함.
- o 중국측에서 창지투 개발협력을 언급할 때, 북-중 경협이라는 표현은 회피함. 창지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대외적으로 북-중 양국 간의 협력이라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음.

북-중 경제협력 현황

- 현재 북한의 대중 경협 참여태도는 매우 적극적임. 중국과 마찬가지로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태도로 매우 신중하게 참여하나, 과거와 달리 적극성을 보임.
- o 최근 북한 경제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제조업 및 기타 생산부문은 모두 중단된 상태로 평가됨. 따라서 외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으며 이것이 최근 발표된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임.
- o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제개방에 나서고 있으나, 한편 국내의 다른 영역에서 非사회주의적 사상에 대한 대응도 강경해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시장경제 개혁은 아주 조금씩 시도하나 계획경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북한경제정책의 특징으로는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경공업, 농업 발전, 국가계획부문생산정상화 및 해외자원조달확보(즉, 중국과의 경협강화)임.
- o 중국의 대북투자는 광물자원과 열악한 SOC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황금평 개발 착공 시에는 중국의 대북 SOC투자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 o 현재 황금평 개발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특히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해 중국측에서는 비료와 농업기술을 공급한다는 협력의 틀을 제시한 상황임.

- 남북관계 긴장이 중북경협을 더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봄.
- 또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민간차원의 남북교역도 무너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음.

Q&A

Q.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협력에 참여하기에 비교적 유망한 분야?

- 비교적 전망 있는 협력영역으로는 관광, 환경 및 농업(친환경 농산물)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민으로 정착된 서구식 문화와 높은 개방도도 기타 동북지역과 구별되는 헤이룽장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물론 동북 3성은 하나의 지역이기에 서로 경쟁하는 국면은 아니다. 공동개발의 태도로 참여해야 더 큰 틀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Q. 창지투는 원래 두만강 유역에 국한된 두만강 개발계획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창지투를 추진하는 지린성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 창지투는 최초에 UNDP에서 시작한 국제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없이 흐지부지 되었고 그 이유로는 두만강 개발의 핵심지역이던 연변이 원래 너무 낙후해 연변 자체로는 경제개발을 이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두만강 유역에서 벗어나, 지린성의 두 경제도시인 창춘과 지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즉, 창춘과 지린을 포함해 전체적인 개발 역량을 보완하려고 했고 그것이 창지투 개발계획으로 발전된 것이다.
- 창지투의 목표는 크게 대내개발과 대외개방으로 볼 수 있다. 대내개발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대외개방은 두만강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것으로 주로 북한의 개방을 포함한다. 중요한 점은 북한의 개방의지 여부가 아니라,

경제개혁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를 이루려고 한다.

기타 일본 주요연구기관의 동북지역 연구동향

- ERINA는 헤이룽장성 정부 관계자와 일본 기업 중 동북진출에 진정 관심 있는 기업 간의 국제 매칭(matching)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음.
- o 일본기업 중 동북지역에 관심 있는 기업은 연구자가 직접 찾아야 함. 우선 일본 상사 중 동북과 투자관계가 있는 기업을 추려낸 후,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함(본 기관을 소개하고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인터뷰에 응하는 것으로 파악).
- o 기업이 해당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1 인터뷰가 가장 효과적임.
-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 지방정부의 실세(실무자)와의 관계 맺음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는 중국진출이 반드시 현지 정부의 협력을 얻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연구진도 최소 3-5년은 현지 정부 관계자와 관계를 쌓는데 주력해야 함.
- o 현지정부의 실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동일 업무에 관여를 하는 사람임. 직책은 변할 수 있어도 이들이 맡는 업무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러시아 교역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정부 관계자는 설령 보직이 바뀌어도 상관 업무를 지속해서 맡게 됨. 이런 실무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함.
- 일본에는 중국 동북지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가 소수 있음. 대표적으로 세이난 가쿠인 대학의 오가와 유헤이(小川雄平) 교수를 들 수 있음. 중국 동북지역에 대해 약 30년의 연구 경력이 있으며, 특히 랴오닝성 전문가임. 일본의 대동북 3성 교역 협력 확대 구상에 있어 한국 동남지역(예>부산)과의 연계, 협력을 중요하게 다루는 학자임.
- 향후 일본에 있는 동북 3성 연구진들과의 네트워킹도 고려해 볼 계획임. /끝/